

KIA '필' 받은 '선발야구'

양현종·스틴슨 호투, 필 이틀연속 결승타
주말 삼성전 4년만에 위닝시리즈
선발·수비의 힘...박빙 승부 강해져
주중 한화·주말 NC전 자신감 충만



“전략”잡은 KIA 타이거즈가 5월 막판 스퍼트에 나선다. 지난 주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올 시즌이 끝난 뒤에도 손에 꼽을 명승부가 잇달아 펼쳐졌다.

KIA와 삼성, 프로야구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는 두 팀의 습막히는 선발싸움에 두 팀의 팬들은 물론 프로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KIA는 화제의 주말 시리즈에서 1-0과 2-0의 영봉승을 찍으며 2011년 6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삼성을 상대로 위닝시리즈를 완성했다. 앞선 삼성전 부진 만화의 중심에는 타이거즈 왕조를 완성시켰던 선발의 힘이 있었다.

내구력이 떨어지는 선발진 탓에 불펜진이 고군분투했던 지난 봄. 불펜진이 흔들리면서 주중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뼈아픈 역전패로 루정시리즈를 당하고 오자, 선발진의 힘이 발휘됐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좌완 유창식과 외국인 투수 스티슨이 눈부신 피칭을 하며 삼성과의 기싸움에 중심을 잡아주었고, 올라오지 않는 페이스에 우려를 샀던 양현종이 “이제야 내 야구를 하는 것 같다”는 소감과 함께 134구 투혼의 승리를 품어 안았다.

올 시즌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된 수비의 힘도 중요한 박빙의 승부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2-0 영봉승을 완성하는 시작점과 마침점에 내야수 강한울과 외야수 박준태의 기가 막힌 수비가 있었다.

선데이 타이거즈의 위력을 발휘하며 기본 좋은 원정길에 오른 ‘호랑이 군단’. 주중 경기는 올 시즌 이슈의 팀인 KIA와 한화의 만남으로 전개된다.

불펜진에 이어 선발진이 모처럼 역할을 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타자들까지 움직여주면 승률 쌓기에도 속도가 붙는다. 지난 주말 김기태 감독은 오랜 기다림에도 답을 찾지 못한 나지완을 다시 2군으로 내리는 강수를 썼다. 돌아온 신중길에 눈길이 쏠린다. 신중길은 복귀 첫 타석에서 시즌 첫 안타를 만들며 기본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KIA는 원정길에 나서면서 힘과 경험이 부족한 박찬호를 내리고 전천후 박기남으로 내야 운영의 폭을 넓혔다.

주말 3연전, 선발 전장이 벌어지면서 강제 휴업에 들어갔던 불펜진이 에너지 충전을 끝내고 한화의 불펜 물량공세에 대비하고 있다. 5월 막판 스퍼트를 위해 페이스가 떨어진 박준태를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꾸준히 시즌을 준비해온 김준을 불러들이며, 유창식의 자리 이동으로 비어있던 좌완 불펜도 강화했다.

주말에는 KIA의 또 다른 징크스 깨기가 진행됐다. KIA는 최고의 명승부로 지독했던 삼성 징크스를 깨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만 나기만 하면 불을 뿜던 NC의 방망이를 상대로 지난 과거를 정리하겠다는 각오다.

힘을 보여준 마운드, 이제는 방망이가 마운드의 짐을 덜어줄 차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필



스틴슨

프로야구 중간순위 (5월 25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연승
1 두산	25	16	0	0.610	3승
2 삼성	27	18	0	0.600	2패
3 NC	25	18	1	0.581	5승
4 SK	24	19	0	0.558	4패
5 넥센	24	22	0	0.522	4패
5 롯데	24	22	0	0.522	2승
7 한화	23	22	0	0.511	1패
8 KIA	22	22	0	0.500	2승
9 LG	19	26	1	0.422	2패
10 kt	9	37	0	0.196	1승



“내년 봄 마운드 설 것”

류현진 수술 성공적... “과부하 탓 아니다”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류현진(28)이 “열심히 재활해서 내년 봄 스프링 캠프 때까지는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진은 최근 다저스타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수술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기)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와 다른 것이 없었다. 2년 전에도 (관절염이) 조금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며 “미국에서 투구할 때 계속 통증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술이 잘됐고, 좋은 생각으로 재활에 임하고 열심히 준비할 것이다. 내년 상황에 전혀 두려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많은 투구가 부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많이 던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많이 던져 부상이 이어졌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구사한 고속 슬라이더 등 구종 변화가 부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팀 주치의 닐 엘라트라체 박사와 수술을 앞두고 재활을 비롯해 내년 복귀 가능성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얘기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내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옳았다고 믿는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퓨처스 리그로 ‘친정 나들이’ 경찰청 안치홍

“2년 뒤 더 강해져 돌아가겠다”

“살 빼고 체력관리 주력... 야구하며 힐링”

그리운 안치홍(경찰청)의 즐거운 친정 나들이였다. 지난 22·23일 KIA 타이거즈의 옛 안방이었던 무등경기장이 모처럼 북적였다. KIA와 경찰청의 퓨처스리그 경기가 무등경기장에서 열리면서, 군인대 이후 처음 친정을 찾은 안치홍을 보기 위한 팬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것이다. KIA 팬들은 타석이 돌아올 때마다 ‘안치홍’을 연호하며 반가운 얼굴을 맞았다. 23일 경기에서는 적군인 안치홍이 홈런을 쳤는데도 관중석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안치홍은 “오랜만에 무등경기장에서 야구를 해서 감회가 새로웠다. 특히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고향 같은 곳에서 야구를 하게 돼서 기분이 좋았다”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감사의 인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안치홍을 기다리며 ‘8번’을 비어 둔 김기태 감독과 구단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김기태 감독과 구단은 팀에 많은 공헌을 한 안치홍을 위해 KIA 시절 사용했던 8번을 임시 결번으로 지정했다. 22일에는 김기태 감독과 조계현 수석코치는 물론 허영택 단장 등 구단 관계자까지 대거 경기장을 찾아 안치홍을 격려하고 경기를 지켜봤다.

안치홍은 “감사한 선물을 받았다.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시고 인정해준다는 생각이 더 큰 책임감이 든다. 감독님과 구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2년의 시간 동안 안치홍이 채우고 싶은 것은 몸과 마음이다. “처음에는 일하고 자고, 야구하고 자고, 운동하고 자고 그렇게 살았다”라면서 웃은 안치홍은 “군생활의 30%가 지났다. 이제는 적응이 많이 됐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살을 10kg 정도 뺐다. 신체적인 부분과 몸관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체력적인 부분을 잘 만들겠다는 목표다. 프로생활을 하



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정리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좋게 말하면 힐링이다”고 말했다. 힐링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안치홍의 성실함과 지독한 승부욕은 여전하다. 몸을 사리지 않은 플레이와 먼저 나서서 공을 챙기고 짐을 옮기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경찰청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 됐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탓에, 유승안 감독이 1회 타석이 끝난 뒤 교체를 해 벤치에 앉힌 일도 있다. 안치홍은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하지만 그래도 예민한 편이다. 여기에서도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경기가 잘 안돼서 나도 모르게 덕아웃에 들어와서 헬멧을 던지기도 했다. 깨지지는 않았다”라고 농담을 하며 “타석에 나가고 수비를 나가면 욕심이 나서 뛰게 된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송원대, 전국체전 광주대표

JK상조배 대학야구 동강대 꺾고 우승

송원대가 JK상조배 대학야구 대회 우승으로 전국체전 일반부 광주대표로 선발됐다.

송원대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 끝난 제 2회 JK 상조배 대학야구 대회 겸 제96회 전국체전 일반부 예선대회에서 동강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이 된 송원대는 오는 10월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야구 일반부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협회가 주최하고 (주)JK상조체인기 대표이사(광주시야구협회 부회장)가 후원했다. 한편 송원대 우승을 지휘한 고천주 감독은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야구대표팀 코치로 선임돼 경정사를 맞았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김찬승(송원대) ▲우수투수상:임대현(송원대) ▲타격상:이주호(1,000·송원대) ▲최다도루상:김명진(3개·송원대) ▲최다타점상:김명진(5타점·송원대) ▲감독상:김지혁(동강대) ▲미기상:이양우(송원대) ▲감독상:고천주(송원대) ▲지도상:이정재(송원대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